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25.(수) 16:00
(지 면) 2026. 11. 26.(목) 조간

민관 전문가 머리 맞대고 '정부혁신 청사진' 그린다

- 행정안전부, 11월 25일 킨텍스서 '2026년 제4회 정부혁신 포럼' 개최
- 정부혁신 추진 방향과 인공지능 시대 일 잘하는 정부 구현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25일(수) 킨텍스에서 열린 '2026년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2026년 제4회 정부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전환의 시대,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다'를 주제로, 정부혁신의 주요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혁신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공공서비스를 꾸준히 혁신해야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활 속 불편을 찾아 개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첫 번째 세션 : 국민 참여와 소통 확대 등 정부혁신 추진 방향 전반 논의

이번 포럼에는 학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정부혁신 추진 방향 전반을 논의하는 첫 번째 세션과 인공지능(AI) 시대 일 잘하는 정부 구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두 번째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연세대학교 문명재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조세현 행정혁신연구실장, 이화여자대학교 최예림 교수, (주)라이너 이준수 엔지니어, 행정안전부 서호성 정부혁신기획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참여와 소통 확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부혁신 등 앞으로 정부혁신이 나아가야 할 주요 추진 방향과 핵심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두 번째 세션: '인공지능 시대 일 잘하는 정부 구현 방안' 주제 발표 및 통합 토론

두 번째 세션은 '인공지능(AI) 시대 일 잘하는 정부 구현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먼저, 한국행정연구원 이효주 부연구위원이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일하는 방식 개선 방향'을 주제로, 중앙·지방정부 공무원과 학계·민간 AX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일하는 방식 개선 7단계 가이드와 8대 정책의제를 제안했다.

이어, 오영삼 컨설턴트가 '민간 부문 인공지능 전환(AX) 사례로 본 업무 재설계의 단계별 판단기준'을 주제로, 고객상담과 채용 선별 등 민간 부문의 인공지능 전환 사례를 살펴보고, 사람과 인공지능의 역할 분담 및 업무 재설계 등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X)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두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연세대학교 문명재 교수가 좌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배창환 주무관, 군포시청 이경욱 팀장, 충남대학교 김란 교수, IBK 기업은행 허태훈 컨설턴트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공공서비스 전반을 혁신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하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혁신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고, 과제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혁신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무엇이 불편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세심히 살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정부혁신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주요 혁신 과제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참여혁신조직실 혁신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박종옥	(044-205-2201)
		담당자	서기관	서호성	(044-205-2213)